

대학생의 기업가 열정이 정보 탐색 및 연계 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병선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팀장)*

김천규 (충남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소를 분석하여 어떤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험을 조사하고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창업에 대한 기업가 열정과 사업기회 발굴 능력과 파트너기업 발굴 연계 역량에 대하여 실증 분석 하였다. 창업의지 설문은 7점 척도의 리커트스타일로 조사하고, 신뢰도 및 타당성 검토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 구현이 가능한 PLS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유효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창업 교과목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421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은 대학 및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를 활용하여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특강에서 기업가 정신 함양으로 학생 스스로 제품 거래처를 발굴 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셋째,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아 창업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실습형 위주의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가 열정에서 기업설립과 제품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시장 진출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탐색역량과 파트너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의지가 있다고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체계적인 계획과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 창업의지, 기업가 열정, 탐색 역량, 연계 역량, 스타트업

1. 서론

언젠가부터 국내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열풍이 불고 있으며 정부 등 유관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자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창업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0.27% 성장한 1.1조원으로 이 비용은 사업화, R&D, 창업교육, 시설 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네트워크 등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분화 하여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초기창업패키지는 2012년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스마트벤처캠퍼스’, ‘세대융합캠퍼스’의 3개 사업을 통합하여 3년

이하의 초기 기업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였다. 창업도약패키지는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7년차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대학은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창업자들이 창업과 폐업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연구자가 소속 된 대학의 재학생이라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진로설계2(취업과 창업)와 창업의 이해, 기업가정신 등 창업교과목이 있으며, 비교과 과정으로 창업특강,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마일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다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기다리고 있다.

창업DNA가 흐르는 대학생은 재학 중에 타 대학, 타 과 등 연합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폭 넓게 실행해 보아야 한다. 창업동아리 활동

* 제1저자,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팀장, sun33@cnu.ac.kr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교수, chunkyuk@cnu.ac.kr

· 투고일: 2019-05-11 · 수정일: 2019-06-17 · 게재확정일: 2019-06-29

만으로도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므로 창업동아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 선·후배간의 네트워크 구성도 중요하다. 대학들도 이제는 연구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개발과 마케팅 역량을 학생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해외 우수창업 대학을 능가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창업자라면 창업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고 이는 창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항목인 기업이 정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열정에 대하여 창업자 스스로 창의력을 가지고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Cardon et al, 2009). 또한, 창업자 열정은 창업자인 기업의 CEO가 임직원에게 회사 비전과 목표 제시가 가능하며 회사 성과창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어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Cardon et al, 2009). 기업이 열정은 CEO가 자신이 설립한 창업기업이 매출 향상과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통하여 '죽음의 계곡'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면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끌어내게 한다(임종희·이진춘, 2017).

창업기업은 인력 및 장비 등 내부 자원을 보완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면 상호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창업기업의 종합적 플랜과 경영성과 관리가 필요하다(윤병선·서영옥, 2016). 이주연·박태경(2015)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하여 발견이론 관점으로 보았으며 이는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으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탐색에 대한 강조는 기회의 발견과 성공창업을 위한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또한, 기업에 위협이 닥쳐 오더라도 진취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창업은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조직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행동과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위기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 기업가정신은 위기와 위험성에서도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발굴한 사업기회가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반열에 올라 설 수 있는 창업자의 열정에 도움이 된다.

해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과 졸업이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제한적인 현 시대에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창업의지(창업의도)에 대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행동에 선행하는 의식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김중운, 2014)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기업설립 열정이 정보 탐색과 연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제품개발 열정이

정보탐색과 연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정보 탐색 및 연계 역량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I 장은 서론으로 구성하고 제II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III 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제IV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고 제V 장에서는 관찰된 결과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 하고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

우리나라 창업교육은 대학을 중심으로 초·중·고교와 주니어, 시니어, 중장년, 실버세대 등 세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산학연관에서 예비 및 초기창업자들이 창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강좌는 정규교과와 비정규교과가 있으며 정규교과는 학점이 부여되고 비정규교과는 창업동아리, 창업특강, 창업캠프 등 다양한 창업 체험활동을 포함한다. 정부지원으로 개설하는 창업교과목에 기업가정신 함양관련 교과 과정을 1개 이상 필수로 개설하여야 하고 또한, 창업교과목에 창업, 벤처, 기업가정신 등 창업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야 한다.

창업교과목 내용은 창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4차 산업, 바이오, IoT 등 신산업분야로 편성하고, 강좌 전체 커리큘럼의 70% 이상을 현장방문, 팀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 이론보다는 실천위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2017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체 422개 대학 중 313개교(74.2%)이며 총 강좌수는 10,461개, 수강인원은 385,571명이다. 이 중 전공은 51.2%(5,352개), 필수과정은 21.3%(2,232개), 3학점 미만은 62.5%(6,536개), 오프라인 강좌는 96.5%(10,096개) 이다. 정부는 청년실업율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를 정부 중심으로 주도하였다.

특히,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은 국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정책을 확산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창업교육의 변화와 질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학 창업교육에서는 팀빌딩과 팀을 구성하여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젝트가 많은 것은 사회 관계속에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창업교육에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 되어 있다(안태욱·박재환, 2018).

대학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창업교육을 통해서 성공창업에 대한 다양한 후천적 창업 역량을 얻을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김기홍·김용태, 2014).

창업교육은 사업진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전략과 기술적 실행 측면에서 간접적인 실무사례 교육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발견된 기회를 익히도록 하는 학습하여야 한다(정유선·정화영, 2018). 창업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2.2 기업가 열정

기업가(entrepreneur)는 사전적 정의로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작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며, 열정(passion)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영어로 ‘entrepreneur’는 “적극적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유래가 되는 불어는 동사 *entreprendre*로서 그 뜻은 “무엇인가를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업가 열정과 기업가 정신은 우리사회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은 ‘창업가 정신’, ‘벤처정신’과 유사하게 사용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기업가를 더 광범위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에서 “기회를 인식하여 포착하며”, “포착한 기회를 사업으로 조직하여 시장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 “자본을 출자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쟁시장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을 극복하는 노력으로부터 보상을 추구하는 혁신자이며 개발자”로 설명하고 있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

심리학자인 Vallerand와 그의 동료들은 열정이라는 개념을 특정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을 좋아하는가?(liking or love), 그 활동을 중요하게(가치있게) 여기는가?(importance or valuing), 그 활동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investment of time and energy)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가 균등하게 충족되었을 때 그(녀)의 활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 이처럼 창업자에게는 기술에 대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Cardon et al.(2013)은 열정은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며 이는 창업자의 창의력을 키우고 유망한 기회를 발견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인식하게 하고 사업수행에 있어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가 열정은 창업자가 직원 등 주변인에게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알리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등에 대한 기업 활동의 지속성과 흡수 능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어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효율성을 촉진한다(Cardon et al., 2009). 기업가 열정은 창업자가 기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 영향을 주어 자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해 나아가며 미래의 성공 목표를 위한 희망 에너지를 이끌어내게 한다(임종희·이진춘, 2017). 조직구성원은 이와 같은 기업가의 열정에 영향을 받아 기업의 성공과 혁신에 참여하는 등 열정은 창업자의 리더십과 감성이 창업자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전이되는 것을 촉진하여 점차적으로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Cardon, 2008). 이로 인해 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에 대한 헌신과 믿음을 증가되어 조직 활성화 및 역량제고가 되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다(임종희·이진춘, 2017).

2.3 기업설립 및 제품개발 열정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창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업가 정신 항목으로 혁신성, 위험 감수성, 미래 지향성, 자율성, 적극성 등을 들 수가 있다. 창업자는 새로운 수익의 원천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기업을 시장의 변화에 적응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비교경쟁우위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김영찬·이한근, 2018). 창업자가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탐지하고 발견하여 제품의 혁신을 추구하고 다가올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으로 행동하려는 기업가 성향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한다(Miller, 1983; Lumpkin & Dess, 1996).

혁신성 등을 강조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 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는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경영 및 R&D 등 인프라 자원이 부족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대부분 창업자 또는 경영진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가의 열정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 관점은 새로운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기업가적 동기부여를 의미 한다(Nanda & Sorensen, 2010). 이에 기존 연구들은 창업관점에서 스타트업들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 열악한 자원을 극복해야 한다(이장우·김민재, 2014). 즉,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란 설립동기, 가치관, 태도 등과 같은 창업자 개인 특성이 아니라 스타트업 구조를 벗어난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절차,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업차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Lumpkin & Dess, 1996; Okhmina, 2010; Miller 1983).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유지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단순히 기업 설립 단계에서만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

적인 열정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업이 정신에 적용하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고경영자인 CEO는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품개발 및 의사결정이 처리되어야 하며,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취성과 인내력이 필요하다(김영찬이한근, 2018).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과 다양화 되어가는 소비자(고객)의 요구사항,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짧아지는 제품 수명주기로 역동적인 환경 변화에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성공은 스타트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에 연결된다(Salomo, et al., 2007). 따라서 신제품 개발은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스타트업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가용자원과 여유자원의 한계로 신제품 안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창업자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더욱 더 집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설립 및 제품개발은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으로 창업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영찬이한근, 2018).

2.4 정보 탐색 및 연계 역량

탐색은 목표 지향적이고 단편적인 요구만을 반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탐색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llis et al.(1993)의 탐색과정 모형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정보탐색 패턴을 분석하여 8단계의 탐색과정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8단계는 시작, 연결, 브라우징, 차별화, 검토, 추출, 확인, 종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과정 모형은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자들에 적용되어 최근에는 학술정보의 유형 중 전자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탐색과정모형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탐색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다.

Hemminger et al.(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전보다 웹 정보자원에 매우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분야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횟수는 감소한 반면, 전적으로 웹(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웹에서 키워드 검색 등 단어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탐색이 이루어지는 패턴 등이 학술정보탐색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Choo et al., 1999).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검색단계는 외국어 탐색문의 선정단계이며, 학술정보 평가에 있어서는 인용정보, 발행지정보, 서지정보 등 직관적으로 현황 파악이 가능한 정보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이보은이지연, 2019).

황윤용(2005)는 소비자의 문제해결 방식은 다양한 정보원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소비자의 정보탐색은

장기기억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회상을 통하여 문제 해결하는 내부정보탐색과 외부 정보원천을 통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정보탐색으로 구분하였다.

연계 역량은 조직이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혁신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의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해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중간 관리자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유용한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Jaroensutiyotin et al., 2019).

개체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서비스는 연결 상태 및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회사동료, 친구 등 정보를 교환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개체와 연결된다. Knoke & Kuklinski(1982)의 사회적 관계유형을 거래, 의사소통, 상호침투, 도구적, 감정적, 권위·권력, 친족관계로 구분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조에 사용되는 측정 지표에는 연결정도 중앙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페이지랭크가 있다. 지상태·남광우(2018)는 체계적인 정보화 연계사업의 추진을 위해 타당한 기준에 의한 평가지표 수립이 필요하며 타 정부부서 및 지자체와의 공동사업과 같은 부서 간 연계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연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부서 간 연계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 연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5 창업의지

창업의지(창업의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이전 받은 기술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ird, 1988).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Bird(1988)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Shapero(1975), Shapero & Sokol(1982) 등이 연구모형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Krueger(1993a; 1993b)와 Davidsson(1995)이 기존 창업의지 연구모형을 정리·확대하여 또 다른 창업의지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Autio et al.(1997)은 기존 창업의지 연구모형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창업의지에 연구에 대한 시작은 의지모형을 중심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이재석이상명, 2015). 의지모형이 제시한 의지를 창업과 연계하여 창업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로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Shapero의 창업 이벤트 모델(SEE, 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이 그 실증자료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Ajzen(1991)이 제시한 TPB 이론은 해당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과 태도가 호의적이고 인지된 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행동을 실행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정 상황에 대한 인간의 행동은 인지적 과정을 거쳐 사전 계획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인간의 의

지는 해당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서 주관적인 기준, 태도, 인지된 통계가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권자의 관심을 해당행동에 집중시키고 설명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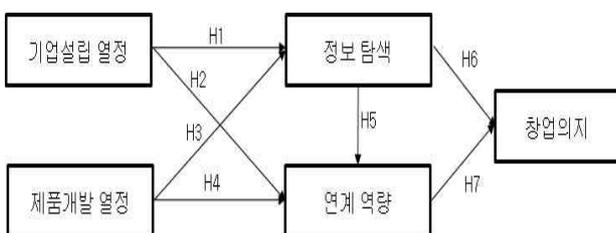
이와 달리 SEE 이론은 관성(Inertia)을 대신하는 행동이 발생할 때까지 그 관성이 인간의 행위를 유도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였으며 창업의지에 대해서 Shapero & Sokol(1982)는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의 정도로 인지되는 매력과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로 인지되는 타당성과 함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성향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준범(2019)은 성취욕구가 강하고, 내부통제성향이 높으며, 위험감수성이 높고, 자율적 성향이 많을수록 창업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혁신성, 적극성은 통계적으로 창업의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의 개인적 특성을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으로 분류하고 분석결과, 위험 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은 창업의지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므로 창업의도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포함하는 교내의 창업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창업의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배병운·이주현, 2018).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통하여 창업교육, 기업가 열정(기업가 정신), 기업설립 열정, 제품개발 열정, 정보 탐색, 연계 역량, 창업의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각각의 변수인 창업가 열정 중 기업설립과 제품개발에 대한 열정이 정보 탐색 및 연계 역량을 통하여 창업교육목인 진로설계2(취업과 창업)를 수강하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기업설립 열정과 정보 탐색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항목으로 기술, 인력, 자본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위에서 나열한 3가지 항목 외에 기업가 정신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그 중 기업설립 열정에 대한 내용으로 기업가정신 이론이 있으며 기업가정신은 인간행동에 의한 목적론을 기초로 하는 발견이론과 창조이론이 재조명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Alvarez & Barnet, 2007).

발견이론과 창조이론은 목적론을 기초로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정리하여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이론인 ‘발견이론’에서는 기회를 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충격에 의해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는 존재로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러한 기회를 발견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Farmer et al.(2011)은 발견에 대하여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식별 및 정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발견은 창업자가 추구하는 발생과 특별한 시장 환경을 활용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세스라고 하였다. 정보 탐색은 시작, 연결, 브라우징 등 8단계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탐색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자의 기업설립 열정은 정보 탐색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설립 열정과 정보 탐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기업설립 열정은 정보 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기업설립 열정과 연계 역량

대학생을 포함하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창의성, 도전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 기업가정신에 포함된다(박상용·김연정, 2004). ‘위험감수성’은 사업기회에 대응하는 창업자(기업가)의 모험적이고 도전적 의사결정권이며, ‘진취성’은 시장진출 기회에 대하여 미래와 목표에 대한 창업자의 행동성향으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성향을 말한다.

‘혁신성’은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활동을 추진하는 성향을 뜻한다(Schumpeter, 1934; Lyons, 2000).

Turner & Gianiodis(2018)은 연계 역량을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외부 지식과 결합하여 창의적인 연결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가능성과 다양한 선택과 경로를 고려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스타트업의 연계 역량은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며 창업자는 기업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창업자의 열정과 내·외부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설립 열정과 연계 역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기업설립 열정은 연계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제품개발 열정과 정보 탐색

Cardon et al.(2013)은 기업가는 열정(Passion)이 필요하고, 열정은 다시 설립(Founding), 발명(Inventing), 개발(Developing)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며 기업가 열정의 성격 및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열정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특정한 부분에서 열정과 그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증된 도구가 부족함을 말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열정과 연관된 강렬한 긍정적 감정의 경험과 기업가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감정의 의미 사이의 이론적 관계를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보탐색은 개인의 지식과 연계 역량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기에서 개발되는 인지체계는 개인의 특정 영역에 대하여 구축한 경험과 학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Tang et al., 2012).

개발된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스키마의 내용과 구조는 특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Gaglio, 2018), 보다 더 포괄적인 정보 탐색 능력을 가진 창업자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비즈니스 확장 기회에 많은 도움이 되며 스타트업의 매출 및 고용 향상 등 기업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Ericsson et al., 1993).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제품개발 열정과 정보 탐색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3: 제품개발 열정은 정보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제품개발 열정과 연계 역량

제품 개발을 위하여 시장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된다. 창업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투자하도록 IR 및 피칭 등을 실시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더불어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 적임자 찾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Cardon et al., 2013).

연계 역량은 개별로 되어 있는 개체가 연결되면 새로 연결된 정보의 유용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환경을 다시 검색한다. 새로운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관성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탐색으로 추가적인 연관성과 아이디어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탐색과 연관성과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어져야 한다(Tang et al., 2012).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인 경우 대학이나 정부출연연등 과의 협력이 기업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황정태 외, 2010).

창업자는 기존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 성장에 주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제품 개발에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업과 지속적인 연계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위 선행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제품개발 열정이 연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제품개발 열정은 연계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정보 탐색과 연계 역량

소규모의 스타트업은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창업초기 실패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 관계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Wu, 2007). Hite(2000)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에 협력관계에 있는 협업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협업기업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초기 창업기업 일수록 네트워크 참여 역량 지수가 높으면 다양한 지식 및 정보 습득과 활용이 쉬우며 동종 또는 이종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한계 극복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이 제품의 경계를 넘어 파격적인 혁신 효과를 필요로 할 때 타사와의 경쟁구도 보다는 네트워크 기업 간 협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Wang & Tunzelmann, 2000).

창업기업은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장비,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면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Wu, 2007; Farmer et al., 2011). 위에 제시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5: 정보 탐색은 연계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정보 탐색과 창업의지

창업자(스타트업)의 탐색 및 활용 활동에 대하여 양자 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March, 1991).

스타트업의 경영에 대한 자원들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탐색활동에 투입되는 경영자원이 증가할수록 이와 반대되는 활용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김대진·박다인, 2016).

Krueger et al.(2000)의 연구 자료에서 창업의지가 기업 운영에 스타트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업을 이해하고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을 실행하기에 앞

서 미래에 대한 창업의 가능성을 예비창업자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창업의 실천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이선협·안은재, 2018).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하여(박재환·김용태, 2009)는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동기를 확인하면서 창업의지와 기업가 열정을 고취시키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면 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창업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의 정보탐색과 창업의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6: 정보 탐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7 연계 역량과 창업의지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협업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아 기업 운영이 충실하게 잘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 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Wu, 2007). 스타트업이 외부로부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기술과 연결하여 새로운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외부 협업기업과의 상호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선협·안은재(2018)는 창업에 대한 사전 준비활동에서 창업 동기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더불어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에서 어떤 요인을 갖고 창업을 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창업동기는 경로분석을 통해 창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동기와 창업만족도의 관계에서 기업가 지향성과 창업의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동기를 통해 창업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창업의지보다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창업의지를 통해 창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성취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계 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연계 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30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있는 9부를 제외한 421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창업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여	206
학년	1학년	2학년	14	3.3
	3학년	4학년	272	64.5
			101	24.1
			34	8.2
창업경험	있다	없다	12	2.9
			409	97.1
창업동기	사회적 지위 향상	부족	21	5.0
	개인 능력 활용	창업이 좋아서	150	35.5
	기타		47	11.2
			108	25.6
			96	22.7
창업 시 애로사항	자금 부족	경험 부족	144	34.3
	전문기술 부족	실패 두려움	132	31.4
	사회적 외면	기타	31	7.3
			77	18.4
			3	0.8
			33	7.8
창업 희망분야	기계	전기/전자	35	8.2
	정보통신	화학	45	10.7
	바이오	소재	92	21.8
	기타		50	11.9
			35	8.2
			40	9.5
			125	29.6
합계			421	100

본 연구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선정한 이유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학중이거나 졸업이후 창업에 대하여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기업가 열정이 정보탐색 및 연계 역량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창업관련 교과목 강의시간에 해당 교수님의 양해를 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의도와 설문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수업 이후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창업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기업설립 열정 및 제품개발 열정이 정보 탐색과 연계 역량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측정문항과 관련연구

측정 개념	항목명	측정문항별 주요내용	관련연구
기업설립열정	FO1	회사 설립에 대하여 흥미가 있음	Turner & Gianiodis (2018)
	FO2	신규 비즈니스 생성이 즐겁다	
	FO3	새로운 회사 만드는 것을 좋아함	
	FO4	투자자 설득하기를 좋아함	
	FO5	회사 가치 창출을 즐거워 한다	
제품개발열정	DE1	제품 거러쳐 발굴을 좋아함	Cardon et al.(2013)
	DE2	비즈니스에 유용한 사람을 찾음	

측정 개념	항목명	측정문항별 주요내용	관련연구
	DE3	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좋아함	Turner & Gianiodis (2018)
	DE4	새로운 고객유치는 개발 동기부여	
	DE5	소규모 비즈니스 성장은 흥미로움	
정보 탐색	ER1	정보 탐색 시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	
	ER2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	
	ER3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에 노력함	
	ER4	기관 방문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연계 역량	CO1	아이템과 비즈니스와의 연계성 인정	
	CO2	창업부서 통하여 신규 아이템 발굴	
	CO3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점 제시	
	CO4	다른 시각으로 나를 돌아본다	
창업 의지	EI1	전문적인 기업가가 목표이다.	
	EI2	향후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EI3	회사 설립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설문 응답자에게 창업의지에 대한 설문임을 인지하게 한 후 설문에 응답하게 함			

본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창업교과목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업설립 열정, 제품 개발 열정, 정보 탐색, 연계 역량, 창업의지 성과 변수들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리커트스타일 7점 척도로 다항목 형식을 구현하여 측정하였다(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문헌연구(Turner & Gianiodis, 2018; Cardon et al., 2013)를 통해서 이미 타당성 및 신뢰도가 입증된 것들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응답자들에게는 설문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는 설문응답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21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421명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었고, <표 2>에는 측정문항과 관련연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4.2 연구가설 검증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열정 중 기업설립과 제품개발에 대한 열정이 정보 탐색과 연계 역량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제시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SmartPLS 2.0 분석 툴을 사용하였다. PLS는 컴포넌트 기반 중심도로 접근방식에 의해 결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분석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른 분석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가 않다(Chin, 1998). 또한, 이론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 및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구현이 가능하며(Wold, 1982),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에 대하여 동시 검증이 가능하다는 용이함을 가지고 있다(김근아·김상현, 2015).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의 적합성을 중요시하는 다른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과 비교하면 원인-예측(causal-prediction)에 대한 결과값 측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PLS를 활용한 분석 방법이 다른 분석기법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다(Chin 1998).

<표 3>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 검토

측정 개념	항목명	요인 적재치	Cronbach's α	복합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값
기업 설립 열정	FO1	0.900	0.950	0.961	0.833
	FO2	0.904			
	FO3	0.936			
	FO4	0.907			
	FO5	0.916			
제품 개발 열정	DE1	0.903	0.938	0.952	0.800
	DE2	0.902			
	DE3	0.891			
	DE4	0.897			
	DE5	0.880			
정보 탐색	ER1	0.881	0.877	0.912	0.730
	ER2	0.814			
	ER3	0.886			
	ER4	0.836			
연계 역량	CO1	0.832	0.837	0.890	0.670
	CO2	0.831			
	CO3	0.811			
	CO4	0.801			
창업 의지	EI1	0.914	0.930	0.912	0.877
	EI2	0.949			
	EI3	0.946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모형을 측정하는 설문항목들이 연구의 방향 및 의도와 동일하게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측정하여 결과를 검증하고, 타당성 분석은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사용된 변수 및 측정문항의 개념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 AVE)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변수들의 신뢰도 측정은 Hair et al.(1998)이 제안하고 있는 Cronbach's α 값이 0.7이상이면 측정문항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성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 구성에 대한 개념 타당성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 적재치 값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의 요인 적재치 값에서 나타내고 있는 측정변수들이 모두 0.7이상으로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측정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복합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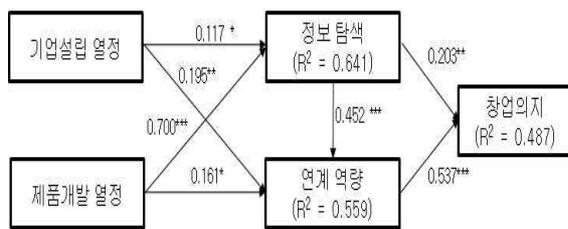
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AVE)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Fornell & Larcker(1981)가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복합신뢰도 0.7이상과 평균분산추출값 0.5이상을 만족하고 있어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판별타당성 검토

측정 개념	기업설립 열정	제품개발 열정	정보 탐색	연계 역량	창업 의지
기업설립 열정	0.913				
제품개발 열정	0.832	0.895			
정보 탐색	0.700	0.798	0.855		
연계 역량	0.645	0.683	0.716	0.819	
창업 의지	0.691	0.661	0.588	0.683	0.936

* 상관관계의 대각선 요소는 AVE의 제곱근 값임. 구성요소가 판별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각선 요소가 비 대각 영역 값들과 비교하여 반드시 커야함.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평균분산추출값(AVE) 제곱근 값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검정하고 각각잠재 변수의 AVE 제곱근(square root) 값은 종과 횡의 상관관계 값보다 커야 판별타당성이 성립된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AVE) 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들과의 구성개념 상관관계 계수의 값들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역시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주) *p<0.05, **p<0.01, ***p<0.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그림 2>에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 가설1부터 가설7까지 값들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으로 7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 탐색에 대한 설명력은 64.1%, 연계 역량에 대한 설명력은 55.9%, 창업의지에 대한 설명력은 48.7%를 보이고 있어 Falk & Miller(1992)가 제시한 적절한 검정력(power) 10%를 모두 상회하고 있다. 따라

서 창업교과목 수강생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설립 및 제품개발 열정에 대한 정도는 정보 탐색 및 연계 역량에 대하여 각각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정보 탐색은 연계 역량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설문자인 대학생의 정보 탐색 및 연계 역량은 각각 창업의지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템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창업자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의 역할이고, 창업교육이 그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설립 열정, 제품개발 열정, 정보탐색, 연계역량, 창업의지를 측정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PLS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열정 중 기업설립 열정과 제품개발 열정이 정보탐색과 연계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실증 분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업설립 열정이 정보탐색 및 연계역량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대학 등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와 창업캠프 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아이템을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회사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제품개발 열정이 정보탐색 및 연계역량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강좌, 창업특강 등 성공한 창업선배로부터 성공사례, 기업가 정신 등 교육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제품 거래처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보탐색 및 연계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과 정부 등 창업지원기관에서 창업관련 교육을 제공받아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는 기업가 열정 구성요소인 기업 설립, 제품 발명, 제품 개발 등 창업의 현실에 대하여 작간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체험해보고 시장에 진출하여, 비즈니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성공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증대하여야 한다(윤병선·서영욱, 2016). 정부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으로 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성공에 대한 의지 향상으로 창업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가 열정 중 기업설립 열정과 제품개발 열정이 충분하고 이와 더불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탐색 능력과 외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할 수 있는 연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창업에 대한 의지는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보다는 창업에 대한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실무형 위주의 창업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선택한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학생이다 보니 창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업 강좌에서 학생들이 창업에 대하여 작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으로 강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으로 성공하는 선배 창업가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접하다 보니 학생 스스로도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희망과 열정만으로는 창업에 성공하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머나먼 여정으로 시장에서 성공이 가능한 아이템의 출시 기회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고 창업기업 단독 보다는 협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의지만으로는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창업이후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계획과 경영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가급적이면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한다. 정부 주도는 성과 위주이고 주기가 너무 짧아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단기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으로 출시하기에는 스타트업의 인력과 자본으로는 벅차다고 판단된다. 기존에는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가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었다면 본 연구는 다수의 기업가 열정 중 기업설립에 대한 열정과 제품개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업기회 발굴 탐색능력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연계역량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되는 연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는 창업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실무형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예비창업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다양한 창업경험과 지식을 습득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창업에 대한 창업 의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창업 강좌를 통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활동으로 대학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변수로 기업설립 열정, 제품개발 열정, 정보 탐색, 연계 역량 이외에 일반인과 대학생을 고려한 여러 환경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모형에서 다루었던 변수들 이외에 여러 가지 창업관련 활동 변수들과 창업의지와 관련한 선행변수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에 대한 실증 분석 대상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대학생으로 실시하였지만 타 대학 재학생과 일반인들도 설문범위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보탐색, 연계역량 등 여러 가지 대학생 및 일반인의 창업활동 변수들과 창업의지 등 창업과 관련한 변수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실증분석과 함께 참여자의 설문에 대한 응답과 회수 등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REFERENCE

- 김근아·김상현(2015). 적응형 기업내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민첩성에 대한 정보기술 역량의 관점, *경영학연구*, 44(1), 185-213.
- 김기홍·김용태(2014). 창업 멘토링 교육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 김대진·박다인(2016). 기업의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형 인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1), 13-27.
- 김영찬·이한근(2017). 도전, 혁신, 열정, 끈기 그리고 플렉스피트: 벤처기업 성장과 기업가 정신, *한국경영학회지*, 22(1), 223-243.
-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 박상용·김연정(2004).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정신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7(3), 479-505.
- 박재환·김용태(2009).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 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2(2), 959-977.
- 배병윤·이주현(2018).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6), 63-74.
- 안태욱·박재환(2018).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77-192.
- 윤병선·서영욱(2016). 창업기업의 준비 및 초기단계 활동들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15.

- 이보은·이지연(2019). 학술정보검색을 위한 국내 대학生の 외국어 탐색문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1), 95-116.
- 이선협·안은재(2018). 여성창업자의 창업동기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지를 매개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 회논문지*, 23(6), 95-112.
- 이장우·김민재(2014).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지역기업 사례: 환경-경쟁전략 적합성 및 협력-경쟁전략 적합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6(1), 45-67.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주연·박태경(2015). 사내 기업가정신의 선행요인과 성과: 발견이론과 창조이론 관점, *경영학연구*, 44(5), 1421-1444.
- 이준범(2019).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관한연구: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15.
- 임종희·이진춘(2017). 창업 벤처기업에 있어서 기업가 열정과 기술준비도가 조직역량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학연구*, 15(1), 33-52.
- 정유선·정화영(2018). 대학생들의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및 창업의지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벤처창업연구*, 13(6), 75-87.
- 지상태·남광우(2018). 지자체 부서 간 업무연계성 진단: 부산광역시 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1(3), 176-188.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8).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문제점*, 서울.
- 황윤용·정재민(2005). 온라인 쇼핑몰애호도에 대한 쇼핑정보 탐색성과와 전환장벽, 신뢰의 역할, *산업경제연구*, 18(6), 2603-2631.
- 황정태·한재훈·강희중(2010). 혁신을 위한 외부협력이 중소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3(2), 332-364.
- Ahn, T. U., & Park, J. W.(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177-192.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s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63.
- Alvarez, S. A., & Barney, J. B.(2007). Discovery and Creation: Alternative Theories of Entrepreneurial Action,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1-2), 11-26.
-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 Ulfstedt, T.(1997).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Testing an intent model in Asia, Scandinavia and USA*. I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7, Babson College/Kauffma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Wellesley: Babson College, 133-147.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ae, B. Y. & Lee, J. H.(2018).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63-74.
- Cardon, M. S., Gregoire, D. A., Stevens, C. E., & Patel, P. C.(2013). Measuring entrepreneurial passion: conceptual foundations and scale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 373-396.
- Cardon, M. S., Wincent, J., Singh, J., & Drnoves, M.(2009). The nature and experience of entrepreneurial pas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4(3), 511-532.
- Cardon, M. S.(2008). Is passion contagious? the transference of entrepreneurial emotion to employe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8, 77-86.
- Chin, W.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2), 295-336.
- Choo, C. W., Detlor, B., & Turnbull, D.(1999). Information Seeking on the Web An Integrated Model of Browsing and Searching.
- Ellis, D., Cox, D., & Hall, K.(1993).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356-369.
- Ericsson, K. A., Krampe, R. T., & Tesch-Romer, C.(1993). The role of deliberate practice in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100(3), 363.
- Falk, R. F., & Miller N. B.(1992). *A premier for soft modeling*. Akron, Ohio, The University of Akron.
- Farmer, S. M., Xin, Y., & Kate, K. M.(2011). The Behavioral Impact of Entrepreneur Identity Aspiration and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2), 245-273.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1.
- Gaglio, C. M.(2018). Opportunity identification: review, critique, and suggested research directions, In *Reflections and Extensions on Key Papers of the First Twenty-Five Years of Advances*, Emerald Publishing Limited, 1-47.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 ed. PrenticeHall.
- Hemminger, B. M., Lu, D., Vaughan, K. T. L., & Adams, S. J.(2007).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cademic scientis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14), 2205-2225.
- Hite, J. M.(2000). *Patterns of multidimensionality in embedded network ties of emerging entrepreneurial fir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Toronto, Canada.
- Hwang, J. T., Han, J. H., & Kang, H. J.(2010). The Impact of Innovative Collaboration on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3(2), 332-364.
- Hwang, Y. Y., & Jung, J. M.(2015). The Role of information search performance, Switching Barriers and Trust on Customer Loyalty toward on-line Retailer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8(6), 2603-2631.
- Jaroensutiyotin, J., Wang, Z., Ling, B., & Chen, Y.(2019). *Change leadership and individual innovative behavior*

- in crisis contexts: An attentional perspectiv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 Ji, S. T., & Nam, K. W.(2018). The Diagnosis of Work Connectivity between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IT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21(3), 176-188.
- Jung, Y. S., & Jung, H. Y.(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artup Education, Startup-Relevant Knowledge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75-87.
- Kim, D. J., & Park, D. I.(2016). The Impact of Corporate Strateg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Certification of Inno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13-27.
- Kim, G. A., & Kim, S. H.(2015). A Perspective of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on, korean management review, 44(1), 185-213.
- Kim, J. W.(2014).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tivation and intended Startup Tim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79-87.
- Kim, K. H., & Kim, Y. T.(2014). Effects of Start-up Mentoring Educational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33-41.
- Kim, Y. C., & Lee, H. G.(2018). Challenge, Innovation, Enthusiasm, Tenacity and Flexfit: Venture Company Growth and Entrepreneurship, *Korea Business Review*, 22(1), 223-243.
- Knoke, D., & Kuklinski, J. H.(1982). Network analysis.
-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2018).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Seoul.
- Krueger, N. F.(1993a). Growing up entrepreneurial?: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exposure to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s Proceedings*, 52, 80-84.
- Krueger, N. F.(1993b).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1), 5-21.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Lee, B. E., & Lee, J. Y.(2019). A Study on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Usage of Foreign Language Queries in Scholarly Information Retriev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95-116.
- Lee, J. B.(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Panel Data Regression Mode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15.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J. W., & Kim, M, J.(2014). The Impact of Strategic Fi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on the Performance of SMEs :An Empirical Study of Samsung Electronics' Supplier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1), 45-67.
- Lee, J. Y., & Park, T. K.(2015). Antecedent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Perspective on the Discovery and Creation Theory of Entrepreneurship, *korean management review*, 44(5), 1421-1444.
- Lee, S. H., & An, E. J.(2018).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 Women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Mediated by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ommitment to Start-up,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6), 95-112.
- Lim, J. H., & Lee, J. C.(2017). Effect of Entrepreneurial Passion and TRI in Start-up Venture Firms to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Innovation Performance, *Journal of Decision Science*, 25(1), 33-52.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yons, B.(2000). Environmentalism as A Source of Corporate Competitive Advantage,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al Review*, 2(2), 217-234.
- March, J. G.(1991).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2(1), 71-87.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Nanda, R., & Sorensen, J. B.(2010). Workplace Peers and Entrepreneurship, *Management Science*, 56(7), 1116-1126.
- Okhomin, D.(201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traits: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upportive environment, *Journal of Behavioral Studies in Business*, 2, 1-16.
- Park, J. H., & Kim, Y. T.(2009).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2(2), 959-977.
- Park, S. Y., & Kim, Y. J.(2004).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EO's Entrepreneurship in Venture Busin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Focused on Innovativeness, Risk-taking and Proactiveness,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7(3), 479-505.
- Salomo, S., Weise, J., & Gemunden, H. G.(2007). NPD planning activities and innovation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process man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duct innovativeness, *Journal of*

-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4(4), 285-302.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hapi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Prentice-Hall.
- Tang, J., Kacmar, K. M. M., & Busenitz, L.(2012). Entrepreneurial alertness in the pursuit of new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1), 77-94.
- Turner, T., & Gianiodis, P.(2018). Entrepreneurship unleashed: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outside of the business schoo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6(1), 131-149.
- Wang, Q., & Tunzelmann, N.(2000). Complexity and the Functions of the Firm: Breadth and Depth, *Research Policy*, 29(7), 805-818.
- Wold, H.(1982). *Soft Modeling: the Basic Design and Some Extensions, in System Under Indirect Observations: Part 2*, K. G. Joreskog and H. Wold. Amsterdam North-Holland.
- Wu, L. Y.(2007). Entrepreneurial resources, dynamic capabilities and start-up performance of Taiwan's high-tech firm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549-555.
- Yoon, B. S., & Seo, Y. W.(201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artup' Activities of Preparatory Stage and Early Stage on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15.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Passion on Performance through Exploration Capability and Connection Capability

Yoon, Byeong seon*

Kim, Chun Kyu**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various factors of influence affecting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nd established and empirically analyzed a research model to see which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individuals, conducted a study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nd analyzed the entrepreneurship passion for startups, the ability to find business opportunities, and the ability to connect with partner companies. The intent to start a business survey was investigated in a recertive style with a 7 point scale, and the reliability and feasibility review were analyzed through the PLS analysis method, which enables the implementation of a measurement model and a structural model. To collect valid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n entrepreneurial curriculum class hours to collect and analyze 421 data.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have many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capabilities through competitions held by universities and support institutions, and by utilizing them, they have no fear of starting a business. Second, the ability of students to discover product clients themselves has been improved by fostering entrepreneurship in the special lectures on startup in universities. Third, it can be seen that it has received various information on startups from support agencies to enhance its commitment to startup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y should foster entrepreneurship among college students by offering practical oriented courses that can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startups. Second, it needs to be improved from entrepreneurial enthusiasm to a program that can grow into a company that can collaborate with partner companies and confirm its commitment to corporate establishment and product development and determine market opportun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cosystem of start-ups that can carry out systematic plann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as it is weak to carry out projects with will to startups.

Keywords: Entrepreneurial pass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xploration capability, connection capability, startup

* Team Lead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n33@cnu.ac.k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kyuk@cnu.ac.kr